



제7회 어린이 우유 장학금 글짓기 대회 입상작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곱번째인 91년도에는 전국에서 총1천5백31명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우수 1편, 우수2편,佳作5편, 입선10편, 장려30편등 총48편을 엄선하여 상장과 장학금(장려상은 부상)을 수여했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는 입선 6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코마운 우유

배운하

전남 장흥읍 장흥국교 5년

나중이야 안 사실이지만 엄마의 직장생활 때문에 나와 내동생은 우유를 먹고 자랐다.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엄마가 우유먹을 돈 내라고 하셨을 때에도 몰래 엄마가 주신 돈을 밤에 엄마 지갑에 넣을 정도로 우유를 싫어했다.

우리 엄마 이런 걸 무척이나 싫어 하신다.

그런 나의 행동을 보시다 못 참으시겠는지 어느날 저녁

“운하야 이리 좀 와보렴”

하시며 거실로 날 불러내셨다.

“왜요? 엄마?”

“잔말 말고 이리 좀 와봐”

내가 힘없이 거실로 들어오자 어머니께서 물으셨다.

“운하야 너 왜 우유를 싫어하니?”

“우유는 이상해요 보기만 해도 속이 이상해 지거든요?”

“안되겠다. 운하야 그럼 너 갓난아기 때 뭘 먹고 자랐는지 아니?”

“아니요 몰라요 모유를 먹었겠지요”

“틀렸어 운하 넌 엄마의 직장생활 때문에 우유를 먹고 자랐어”

“네? 우유라고요?”

“그래 넌 우유를 먹었어”

‘나는 엄마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몇번이나 귀를 씻고 들어도 엄마 목소리는 계속

“넌 우유를 먹었어”

하고 들려왔다.

“엄마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 우유를 먹고 자라났다면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유를 좋아했었게요?”

“아니야 그럴수도 있겠지만 운하 너 어떤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떠니?”

“응~ 계속 먹으면 싫증이 나오”

“그래 그런거야 어려서 부터 우유를 먹고 자라서 이젠 그 우유가 싫증이 난거야”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이지만 엄마가 왜 이리 몸집이 작고 키가 작은 줄아니”

“

운하야,
엄마가 왜이리 몸집이 작고 키가 작은줄아니
그건 옛날 외할머니께서 젖이 안나와서 엄마에게 젖을 주지못하고 우유가 있었지만 쉽게 구할 수 없어 쓸죽으로 키웠기 때문이란다.

”

“아뇨 모르겠어요”

“그건 옛날 외할머니께서 젓이 안나와서 엄마에게 젓을 주지 못했단다. 그때에도 우유가 있었지만 어디 쉽게 우유를 먹을 수 있었니? 그냥 쌀로 죽을써서 나를 키웠대”

엄만 기억하기 싫은 일을 말하셔서 인지 쓴 웃음을 지으셨다.

나도 우유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우리반에서 제일 몸 약한 소리처럼 조금만 다쳐도 울음이 나는 그런 아기가 됐을 것이다.

“엄마 우유가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엄마는 우유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나에게 실망하셨는지 무뚝뚝하게 말씀하셨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듬뿍 들어 있어서 우리의 몸 전체를 고르게 성장시키고 이도 튼튼하게 해 주지”

“그렇지만 우유를 안 먹어도 이가 튼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도 있지 그렇지만 우유를 먹는 사람의 이가 더 튼튼하단다.” 나는 이런 우유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엄마가 고맙기는 커녕 잔소리 듣는 것처럼 듣기가 싫었다.

엄마의 끝 말씀은 완전 잔소리 였다.

내가 먹기 싫은 우유를 가리키며

“운하야! 이젠 우유의 중요성을 알았겠지?”

“아뇨!”

“그럼 이제까지 엄마가 말한것을 잘듣고 있었으면 우유를 반컵씩 해서 계속 늘려갈려고 했는데 엄마말을 안들으니까 할 수 없구나, 운하는 집에 있는 맥주컵으로 반컵씩 먹어 알겠지?”

“하지만 엄마……”

“왜?”

“맥주컵으로 받은 너무 많아요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우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양이 너무 많아요”

“그렇까?”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좋아 그럼 작은컵으로 반씩 점점 늘려가는거야” 하셨다.

지금은 우유를 좋아하게 되어 몸이 더 튼튼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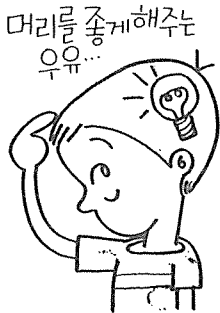
니를 이렇게 만들어 준 우유가 고마웠다.

“우유야 고마워”

날마다 우유를 먹을 때면 우유에게 나는 이렇게 살며시 말한다.

그러면 우유가 살며시 나를 보고 웃으며

“운하야 고마워 날 사랑해 줘서……”



하고 말하는 것 같다.

지금은 우유의 양을 늘여서 2컵을 먹고 있다.

3컵 정도는 마셔야 되는 데 2컵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엔젠가 나도 어렸을 때처럼 우유없인 하루도 보내지 못하는 내가 될것임을 나는 믿는다.

입선

우리집은 우유가족

이 은 영

경기 이천 설봉국교 4년

“이거 누구 솜씨니?”

주방 저만치서 엄마가 물으신다. 나는 굉장히 잘한 것이나 있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려고 엄마가 부르시는 줄 알고 숙제를 하다 말고 잼싸게 달려갔다.

뒤늦을세라 오빠도 금방 쫓아왔다.

“엄마, 왜요?”

“글쎄, 니네들 이거 이럴수가 있어?” 화가 나서 꾸지람하시는 엄마가, 도대체 왜 그러시나해서 두리번 거리며보니, 엄마가 들고 계신건 우리가 학교에서 먹는 급식우유팩이었다. 벌어진 우유팩속을 들여다 보니, 세상에…….처음 보는 구경거리로, 마알간 물과 물결한 하얀 덩어리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신기해서,

“엄마, 우유가 왜 이래요?” 물었다.

그때서야, 오빠가,

“엄마, 그 우유 제것인데요. 학교에서 마실 시간이 없어서 도시락 가방에 넣어둔거예요,”

한다. 그 말에 엄마는 어이가 없으신지,

“니들 학교파하고 온지가 몇시간이니?”

학교우유는 반드시 먹고 오기로 한 약속을 어겼으니 너 내일 용돈이 없는줄 알아!” 하신다.

오빠는 그만 머쓱해져 용돈마저 뺏기고는, 기가 팍 죽어 제방으로 들



어갔다. 그래도 나는 분리된 우유가 신기하게 생각되어서 엄마께 또 캐물었더니,

“우유에는 유지방과 칼슘이 많아서 밀폐된 더운곳에 두면 지방성분이 분리 되는거란다.”고 설명해 주셨다.

엄마는 우리가 우유를 열심히 맛있게 마시지 않을때는, 곧잘 엄마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곤 하신다. 엄마또래는 제대로 못먹고 자란세대라 하신다.

그때만 해도 진짜분유는 돈있는 집만 사먹을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다고 한다.

어쩌다 딱딱한 분유덩어리라도 얻으면 큰 횡재를 했다고 무척 신나했었다한다.

엄마 국민학교때는 우유를 더 얻고 싶어서 학교수업이 끝나도 집에 가질않고 운동장에서 노는척하며 일부러 오래오래 학교에 남아있으면, 선생님께 불려가서 심부름도 하고, 남은 분유를 더 받아서 집에 갖고와서 사탕가루를 넣어서 달게 물우유로 끓여 먹었다고 하신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 허둥대며 밥을 안먹고 학교에 갈려고 나서면, 붙잡힌 우리들 앞에는 우유 한잔이 어김없이 식탁위에 오른다.

“우유 한잔이 얼마나 영양가가 많으며, 아침에 머리를 맑게해주며…….”

우유예찬론을 펴시는데는, 마시지않고는 절대로 학교에 갈수없게 만든다.

엄마는 강제로 마시게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몸에도 다른 어떤 보약보다 더 좋은것인줄을 우리도 안다. 그러기 때문에, 나도 진짜로는 엄마의 ‘우유 강제로 먹이기 작전’의 즐거운 대상이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우리 남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우량아여서, 누나인줄로 가끔은 착각해서 나를 즐겁게 해주기도 하시기 때문이다.

“

엄마는 우리가 우유를 맛있게 마시지 않을 때는 곧잘 엄마어린시절의 이야기를 꺼내곤하십니다. 그 때만해도 진짜분유는 돈많은 집만 사먹을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다고...

”

입선

나의 건강과 우유

한 윤

충남 논산 용남국교 5년

“어머니, 우리 가을이 키가 3Cm나 더 자랐네?”

얼마전 나와 동생의 키를 재어 벽에다 글을 그어 놓았었는데 동생이 어느새 3Cm 더 자란것을 보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것 같애.”

아버지도 웃으셨다.

“너도 이리 와서 서 보라. 키 좀 재 보게.”

어머니는 내게 손짓 하셨다. 나는 혹시나 하는 기대로 벽에 기대어 섰다. 내 키는 좀체로 자라지 않아 학교에서도 작은 편에 속해 있었다.

“아니, 얘는 또 그대로네. 앤 왜 이렇다죠?”

어머니는 실망이라는 듯이 아버지를 바라 보셨다.

“클때 되면 다 크니까 걱정 할 것 없어요. 나도 중학교때 까지는 작았는데 갑자기 키가 자라더라구. 1년에 14Cm도 컸어.”

하시며 아버지께선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셨다. 그러시면서,

“키도 키지만 온 몸이 균형있게 발달해야 건강한거야.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이 건강의 비결이지.”

하셨다.

사실 생각해 보면 동생과 3년이나 차이 나면서도 키와 몸무게가 비슷 한것은 음식을 먹는것에도 문제가 있었다.

동생은 우유나 계란 고기 같은것을 좋아해서 잘 먹는데 나는 김치나 매운찌개를 좋아한다. 그리고 군것질도 무척 좋아한다. 어머니는 늘 “우유를 많이 마셔라. 우유는 모든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으니까 건강에 좋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난 도무지 우유가 싫었다. 학교에서 우유를 마실때도 억지로 마시거나 반쯤 마시고는 버리곤 하였다.

아버지는 몇년동안 우유를 마신 덕분에 위장이 무척 좋아지셨다고 하시고, 어머니는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러워 졌다고 하신다. 그리고 우유를 계속 마시면 늙어서도 허리가 잘 굽지 않게 된다고 꾸준히 드신다. 또 내 동생은 우유 대장이라 우유만 보면 마시는 덕에 키도 늘씬하게 크고 피부도 윤이난다.

내가 문제다. 옷옷을 벗어보면 갈비뼈도 나타나고 다리도 동생보다 가 늘다.

얼마전에는 얼굴 색깔도 안 좋고 버짐이 피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셨다.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인 너무 허약 하군요. 영양을 고루 섭취하게 해 주셔야 겠어요. 우유나 치즈 같은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비타민이 많이 든 음식을 충분히 먹이세요.”

하셨다.

“그 것 보라. 왜 엄마 말 안듣고 음식을 가려 먹었니? 우유를 많이 마시 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듣고……”

하시며 눈을 흘기셨다.

“

편식으로 허약한 나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후 우유가 배달되면 이제 동생과 서로 먹겠다고 다룬다. 머잖아 윤이의 얼굴은 반짝 반짝 윤이나고 키도 쑥쑥자라서 키자랑 힘자랑 할 때가 오리라

”

‘홍, 그까짓 우유 때문에 건강에 차이가 날려구.’

했었는데 이렇게 허약 해 진것을 보니 정말 큰일이었다.

그날 부터 난 결심을 하고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다. 우리집에는 우유가 오후 5시쯤이면 배달되는데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우유를 마신다. 이젠 동생과 서로 많이 먹겠다고 다투면서 먹는다.

머지않아, 윤이의 얼굴은 반짝 반짝 윤이나, 차츰 예쁜 얼굴로 변하고 키도 쑥쑥 자라서 키자랑 힘자랑 할때가 오리라.

입선

우유야 고마워

조은미

경남 함안군 하림국교 6년

나에게는 목장을 경영하시는 외삼촌이 한분 계신다. 그래서 가끔 우리 집에 오실 때 우유를 가지고 오시는데 하얗고 신선한 우유는 뼈속까지 파고드는 것처럼 아주 뭐랄까? 구수하다고나 할까?

외삼촌께서는 우유에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서 우유를 많이 먹으면 뼈와 이가 튼튼해진다고 하셨다. 그래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자주 사 먹진 못하지만 굳것질할 때가 있으면 우유를 사 먹는다.

난 우유를 자주 먹는 아이들이 부럽다. 그런데 우리반 아이들 중에는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도 있는 것 같다. 초코렛, 사탕등을 좋아하고, 하기가 초코렛 사탕등을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지만 그런 것들은 먹는 그때 입을 즐겁게 해 줄뿐이지 이도 잘 씹는다. 하지만 우유는 먹을 땐 입이 즐겁고 먹고 나선 뼈와 이에 좋기 때문에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 갑자기 외삼촌이 무척 고마워진다. 왜냐면, 여러사람들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우유공급을 위해 힘쓰시니까. 그리고 내 친구는 몸이 몹시 허약했는데 한 몇달 우유를 규칙적으로 먹고 나니까 몸이 무척 건강해진 것 같았다. 꼭 우유만의 덕분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먹지 않았을때와 먹고 나서를 비교해 보면 우유의 덕분도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유를 누가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을까? 궁금하다. 하여튼 발견하신 분에게 감사하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건 나의 상상이지만 깨끗하고 신선한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이 우유처럼 하얗고

“

깨끗하고 신선한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이 우유처럼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진짜 마술사가 된다면 이런 우유를 발명해 보고 싶다.

”

깨끗하게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간다면 얼마가지 않아서 밝고 명랑하며 아름다움이 흘러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정말 그렇게 신비로운 우유가 있다면
 유괴범, 강도 등도 없어질수 있을텐데... 내가 진짜 마술사가 된다면 그런
 우유를 한번쯤은 발명해 보고 싶다.

아! 정말 상상만 해도 즐겁다. ‘우유’ 정말 그러고 보니까 우유란 존재는
 참으로 고마운 것이다.

입선

건강의 파수꾼 '우유'

오수현

광주 영주국교 6년

이른 새벽 어둠을 깨치고 매일 같이 집집마다 우유를 배달 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 해 보았다.

보다 신선한 우유를, 아니 우유 속에 담긴 우리들의 건강을 배달하기
 위해 달리는 그 분들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우유를 마셔보니 우유 한 모금,
 한 모금이 새삼 꿀맛이었다.

유치원 졸업 선물로 받았던 나의 빨간 앨범을 펼치면 백일 지난 뒤 부터
 찍혀진 사진에, 귀여운 나의 모습과 우유병이 자주 등장한다.

“엄마! 도대체 이 사진은 제가 왜 이렇게 살이 찼어요?”

“수현아! 었만 그 때의 네가 제일 사랑스럽고 귀여웠단다. 우유를 주면
 한 모금이라도 떨어질세라 입술까지 빨아 대며 벌컥 벌컥 빨아먹던 네
 모습을 잊을 수가 없구나. 아마 네가 그렇게 잘 먹어서 이렇게 건강하고
 키도 컸을꺼야.” 하시며 만약 우유가 없었다면 나를 카우는데 힘이 들었을
 것이라며 우유의 고마움을 늘상 이야기 하신다.

나는 키가 작으신 엄마를 6학년이 되자 부쩍 넘어섰다. 그런 나를 대견
 한 눈으로 바라보신 엄마는 날 무척 자랑스러워 하신다.

앨범을 보면 아빠께서 나를 안고 우유를 먹는 장면, 또 흔들 침대에서
 아기였던 내가 고사리같은 손으로 우유병을 붙잡고 먹고있는 장면들이
 많이 눈에 띈다. 그 사진들만 보고 있어도 내가 이만큼 자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수고로움과 함께 우유의 덕분도 크게 숨어있다는 생각이 든다.

엄마는 어린 시절 우유도 제대로 구할 수 없어 미음을 쑤어 먹고, 우유도



6.25 직후라 미군들로부터 어렵게 구해 먹게되면 설사를 해 버려서 영양이 충분치 않았으며,

“너희들은 참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을 곧잘 하신다. 텔레비전에서 어느 우유 회사의 선전하는 장면에 우유가 왕관 모양으로 퍼지는 장면을 본적이 있다. 우유가 우리에게 주는 건강면에서 우유에게 상을 줄 수 있다면 그 왕관 모양의 상을 내려주고 싶다.

“애! 우유가 맛이 없지. 우유 맛이 왜 이리 싱겁니?” 등 학교 급식 우유를 먹지 않고 가방에 그대로 넣어 가는 아이들을 많이 본다. 달콤한 과자에 맛이 들여진 우리네 입맛이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하여 먹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은 채, 조금만 이상해도 투정부터 부리는 우리들은 많은 반성이 필요할 것 같다. 하루에 몇 컵씩 마셔댄다는 선진국에 비한다면 우리네 우유 소비량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애들아! 우유 먹어라.” 매일 자주 듣는 엄마의 다정하신 목소리 속에는 엄마의 따스한 사랑과 함께 우유가 우리집까지 배달되기까지의 고마우신 여러 손길들이 가득하게 담겨있다.

유난히 더운 날이나, 목이 말랐을 때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우유 한 잔은 이 세상 그 어느 맛에 비할 수 있을까? 키 작으신 우리 엄마의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를 건강하고 키가 큰 아이들로 키우고 싶으시단다.

‘우유빛 살결’이란 말이 있듯이 투명한 유리컵에 따라진 우유 한 잔은 우리 엄마의 소원을 들어 줄 것이고 나의 소원인 ‘우유빛 살결’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라딘과 요술 램프’ 속에 나오는 거인의 신비함을 맛 보게 해 줄 것이다.

‘건강의 파수꾼인 우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마셔야지…….’

“

보다 신선한 우유를, 아니 우유속에 담긴 우리들의 건강을 배달하기위해 달리는 그분들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우유를 마시니 한모금 한모금이 새삼 꿀맛이었다.

”

입선

나의 소중한 우유

소민재

대구 달성 국교 6년

“애들아, 자기 우유 찾아가.”

첫째 시간 마치고 우유 급식 당번인 광섭이가 큰 소리고 외쳤다.

“야! 너는 우유 급식 당번이면서도 왜 우유를 받아 먹지 않니?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유 급식 당번이라고 할수있니?”

나는 광섭이에게 마구 따졌습니다.

광섭이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아침 자습 시간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우유 급식 당번을 뽑겠어요. 어제까지 고생한 영식이에게 박수- 우유 급식 당번 할 사람 손들어 봐요.”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얼른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둘러보니 광섭이도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음, 몸이 약한 민재보다, 뚱뚱한 광섭이가 하도록 하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과 나까지도 모두 웃었습니다. 그러나, 광섭이가 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뚱뚱하게 될수 있을까?’

집에 돌아온 나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재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하시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다 걱정 하는구나. 내가 늘 말했지. 너는 허약하니까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라고...”

“맞아, 그것이야.”

나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애야, 숨 터지겠다.”

“때르릉! 땡땡!”

나의 단잠을 자명종 시계가 방해했습니다. 얼른 일어난 나는 부리나케 체육복으로 갈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휴-”

아침 공기는 너무나 상쾌했습니다.

온 도시를 뒤덮은 안개, 나무에 맺힌 이슬들, 조용한 거리.....

마치 나만의 세상 같았습니다.

‘이제 슬슬 달려볼까?’

하고 다짐한 나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 짹짹...’ 전깃줄에 얹어 있는 참새 가족들이 나에게 응원하듯 지저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이슬 몰래.....”

참새 가족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니 더욱 더 힘이 났습니다.

‘어!’

나는 그만 그 자리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노래도.....

앞에서 광섭이가 자전거에 우유를 싣고 우유 배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

우유급식 당번 할 사람 손들어 보라는 선생님 말씀에 나는 얼른 손을 들었지만 몸이 약한 민재보다 뚱뚱한 광섭이가 하도록 하라는 선생님 말씀에 모두 웃었습니다.

”

오동훈
만화
피로회복



나를 본 광섭이는
“이히! 민재야, 안녕?”
뚱뚱한 광섭이는 히죽히죽 웃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전 아빠는 교통 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아프셔서…….”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아이들이…… 나와 같은 반 친구인 광섭이라니……
“광섭아, 미 미안해. 어제 나의 행동 요오 용서해줘.”
나의 눈에서는 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광섭이는 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거 먹어.”
나는 광섭이가 주는 우유를 받아 먹었습니다.
“광섭아, 너와 같이 먹는 우유. 참 맛있구나.”
어느새, 아침 해는 떠오르고 학교 가는 아이들은 하나 둘 보이기 시작
했습니다.
‘광섭아, 넌 나의 소중한 우유가 될 거야?.'
나는 다짐,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